

배화교회

주보 제 2020-10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20.3.08



사순절 제 2 주

사순절.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공격과 비난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듯합니다. 빛의 힘보다 어둠의 힘을 더 두려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약한 자를 비난하는 부조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절망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고뇌 속에 받아든 고난의 잔은 평화의 길을 여는 성배입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막다른 길목에서 열립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제 힘을 드러내고, 평화는 언제나 고통 한가운데서 그 이름이 소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늘의 뜻을 드러 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이 제 욕심에 눈이 어두워 외면하거나 알기를 거부하고 다른 허상을 좇아 헤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평화의 길은 고난의 신을 신지 않고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죽음의 신음소리에 둘러싸여도 제 혼자라도 내디뎌야 하는 고독한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에 서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 인도자 :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 회 중 : 여호와 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 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 다함께 : 여호와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라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고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집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예수 열방의 소망 / 주는 완전합니다 + 온전케 되리

공동기도 다같이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김영석 목사

봉헌 배화교회의 기도 2

1. 빛으로 오신 주와 동행하며 사람됨으로 주변 세상을 밝히는 촛불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나타내소서
2. 교회로 모인 성도의 사랑- 진실한 사랑 배우게 하사 주님의 한몸 이루어가며 성숙의 기쁨 알게하소서
3. 길 잃은 세상 생명 잃은 땅에 예수가 주신 복음 전하세 산위의 등불 희망의 소리 주님의 교회 이루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요한복음 3장 1-5절, 4장 11-14절

3: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4: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김영석 목사 예수님과 대화(2) 인사와 아싸, 은혜에 눈뜨다

파송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축도 김영석 목사

*공지사항

1. 배화교회는 코로나19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 배화교회는 대구지역의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헌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호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계좌이체 시 이름 옆에 "구호"라고 표기해주세요. 농협 317 0018 9846 21 (예금주: 배화여자대학교부속대학교회)

공동기도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속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공회를 베풀어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여러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병의 고통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욱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그들에게 쏟아지도록 인도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의 아픔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곳곳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이들의 수고가 생명을 지키고 병의 악화를 막아내는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배화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덮어두었던 우리의 악한 의도와 죄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